

언캐니 개념으로 바라 본 현대건축의 미적사유와 표현경향 연구

A Study on the Aesthetic Thought and Expression Tendency of Contemporary Architecture from the Concept of the Uncanny

Author 박경아 Park, Kyoung-Ah / 정회원, 숙명여자대학교 미술대학 환경디자인과 강사, 건축학박사

Abstract This study aims to analyze the aesthetic thought and expression tendency appeared in contemporary architecture by looking at today's architectural art based on the concept of the uncanny that Sigmund Freud contended as an aesthetic principle, of the aesthetic concepts tossed around to define the contemporary times in the aesthetics field and discuss the architectural analysis possibility of the concept of the uncanny. The generation structure of the uncanny that generates experiences of fear and surprise is classified into dual structure, trauma, threatening structure, and repetition compulsion. This is the principle that evokes a sense of experiencing subject, incorporates sensibility, and vitalizes internal process. This is also the methodology to organize and structure the concept of the uncanny. When seen from the four factors drawn from the concept of the uncanny and aesthetic expressions, the uncanny expression characteristics of contemporary architecture includes isolation, subversion, trace, absence, oblique line, flotation, concealment, and disturbance. Isolation and subversion refers to producing the space of the pressure of tension and relaxation caused by repression and relief from repression and eliciting the maximum expansion of the sense of space through spatial change. Trace and absence indicates being able to elicit more intense emotions from the experiencing subject by applying the images of alienation and absence in the way to reproduce historical trauma. This happens by implementing the potential value of physical activity. Oblique line and flotation means visual impulse. This happens in the way to visualize uneasy points. This causes uncanny by threatening the survival. Finally, concealment and disturbance refers to creating unpredictable space. The concept of masquerade and maze space composition are applied in the way to activate spatial perception, including space exploration and unintended subject's forced selection. As stated above, the uncanny expression characteristics shown in contemporary architecture can be presented as indicators that are available to analyze the undecided and diversified contemporary architecture aesthetically. In this respect, this study has great significance.

Keywords 언캐니, 프로이트, 미적사유, 건축적 표현
Uncanny, Sigmund Freud, Aesthetic thought, Architectural expression

1. 서론

1.1. 연구 배경과 목적

‘미(美)’는 기쁨·쾌락의 근원적 체험을 주는 ‘아름다움’으로, 칸트(Immanuel Kant)는 ‘미’를 ‘개념 없이 보편적으로 만족을 주는 것’으로 규정하며 “아름다움에서 오는 쾌감이 우리들의 주관 및 주관의 ‘쾌(pleasure)’와 ‘불쾌(displeasure)’의 감정과 관계한다.”고 이야기한다. 건축역사에서 이러한 아름다움이 존재할 수 있는 미의 기준 및

미적 개념은 시대의 가치기준에 따라 조금씩 다르게 인식되어왔으며 서로 다른 개념들로 강조되었는데, 고대에는 조화, 질서, 균형 등 수학적 관계에 바탕을 둔 ‘형식미(beauty of form)’가 이상적 미로 추구되었으며, 중세에는 빛을 통해 드러나는 공간의 다양한 미감 및 종교적 경외와 장엄함이 강조되는 ‘숭고미(sublime beauty)’가 형식미와 연계되어 미적 이상으로 소구되었다. 이러한 순수예술의 미적 개념은 근대 산업화(industrialization)를 거치면서 공간의 합리적 가치와 유용성 개념이 중심이 되는 ‘기능미(functional beauty)’로 전환되어 새로운 미

적 이상으로 조명되었으며, 이는 현대에도 여전히 유효한 미의 기준으로 지속되어 오고 있다. 그러나 고대에서 근대로 이어지는 형식, 숭고, 기능의 미적 개념들은 형식의 틀을 벗어나 자유로운 변형을 추구함으로써 새로운 가능성을 모색하는 현대건축의 미적 특성과 현상이 지니는 의미의 다양성을 논의함에 있어 범주적 인식의 한계를 드러낸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새로이 형성된 현대건축의 흐름을 보다 포괄적으로 수용할 확장된 의미의 미적 개념의 정립 및 해석 기준에 대한 논의의 필요성을 제기하며,¹⁾ 현대를 바라보는 새로운 관점으로, 아름다움이나 숭고함만을 다루는 전통미학의 시각을 벗어나 반감이나 두려움, 놀라움이나 피기함까지도 미학의 중요한 소재가 될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프로이트(Sigmund Freud)의 언캐니(uncanny) 개념²⁾에 기초해 오늘날의 다원화된 건축을 조망함으로써 현대건축에 나타난 미적 사유와 언캐니적 표현경향을 해석하고 그 표현의 논리를 체계화하여 언캐니 개념이 현대건축을 해석할 수 있는 하나의 개념적 지표가 될 수 있음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1.2. 연구 범위 및 방법

따라서 본 연구는 프로이트가 ‘미학원리’로 주장한 언캐니 개념이 파생시킨 예술적·건축적 현상들을 해석하고 이를 통해 현대건축을 새롭게 조명하고자 함이며, 그것이 함의하는 바가 무언인지를 탐색하고자 함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 사용되는 개념들과 어휘들은 내용의 이해상 프로이트의 정신분석학적 용어를 포함하였으며, 사례분석은 건축이 전통적으로 지녀온 안전성(stability)의 교란을 부각시킨 해체주의 건축을 기점으로 현 시점까지를 연구의 시간적 범위로 설정하였다. 현대건축에 나타난 언캐니적 현상의 포괄적 조망을 위해 사례작품의 선정은 해체주의 작품으로 한정하지 않았으며, 공간경험을 감정 반응의 연속과정으로 이해하고 이러한 견해를 자신의 저서와 작품집을 통해 밝히며 시대적 실험성에 늘 선두자리를 차지하며 활발히 작품 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현대건축가 6인의 작품을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의 방법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언캐니의 어원적, 의미적 접근을 통해 그 개념이 내포하는 미학적 원리를 이해하며, 예술사에서 언캐니 개념이 어떠한 논리와 방식으로 제시되어

왔는지를 살펴봄으로써 언캐니를 유발하는 생성구조와 디자인 전략을 추출한다. 3장에서는 건축담론에서 논의되었던 ‘언캐니(architectural uncanny)’의 공간적 성격을 밝히며 해체주의 건축에 내재된 언캐니적 표현 및 내포적 의미를 논한다. 4장에서는 2장에서 추출, 분류한 언캐니의 4가지 생성구조를 통해 현대건축 전반에 나타난 언캐니적 표현경향을 해석하며 그에 따른 건축적 표현특성을 분류하여 그 논리를 체계화한다. 5장에서는 현대건축에 나타난 건축적 언캐니의 표현경향을 해체주의 건축과 구분하여 그 차별성을 논하며 본 연구의 기대효과 및 의의, 연구 내용의 한계와 향후 과제를 밝힌다.

2. 언캐니의 어원적 · 의미적 해석

2.1. 언캐니의 기원과 개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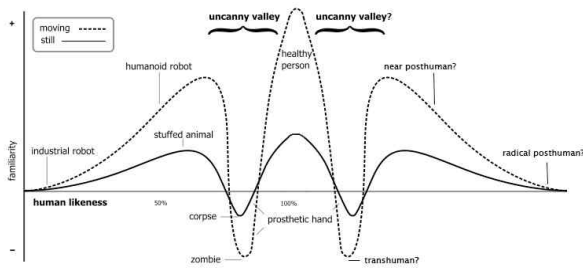
‘이상한, 묘한, 미묘하게 불쾌한’이란 뜻을 지닌 언캐니는 내면적 부조화속에서 감정의 총일(overflow), 혼돈, 두려움, 불안, 공포 등을 수용하는 것으로, 친숙한 것이 그 일상성을 탈피할 때 가장 기이하고 두려운 것이 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그 동안 언캐니는 철학, 문학 및 심리학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논의되어왔으나 이것이 미학적 개념(aesthetic concepts)으로 접목되어 제시된 것은 20세기에 이르러서이다. 1919년 프로이트는 자신의 저서에서 숭고함이나 아름다움을 연구하던 전통미학과의 차별성을 언급하며, ‘목적의 억압당한 감정’을 중심으로 언캐니를 이야기한다. 프로이트는 언캐니가 가지는 어원의 양가성(ambivalence)에 주목하였는데, 그는 ‘친근한, 집 같은, 낯익은’이란 뜻을 지닌 ‘캐니(canny)’는 ‘낯선, 두려운, 놀라운’의 뜻을 가진 ‘언캐니(uncanny)’의 뜻을 담고 있다고 지적하며, 언캐니한 감정은 가장 기이하고 두려운 것인 반면에 자신의 가장 친숙한 측면 중 하나로 수용 가능하다고 이야기한다. 그는 언캐니를 오래전부터 알고 있던 것, 친숙했던 것에서 출발하는 감정으로 정의하며, 가장 언캐니한 물건들로 ‘밀랍상, 마네킹과 자동인형’을 서술하는데,³⁾ 그 이유에 대해서 ‘생명이 있는 것과 생명이 없는 것’, ‘인간과 비인간’이 혼동된 원초적 상태를 생각나게 하며, 실명, 죽음, 거세, 죽음에 대한 유아기의 불안을 떠오르게 하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한다.⁴⁾ 이러한 프로이트의 언캐니 개념은 마사히로 모리(Masahiro Mori)에 의해 로보틱스 이론으로 발전되는데, 그는 ‘인간이 로봇이나 인간이 아닌 것들에 대해 느끼는 감정’ 즉, 사람을 흉내 낸 물체가 실제 사람과 닮아갈 수록 심리적 호감도(familiarity)가 떨어지는 현상과 이에 따른 거부감

1) 새로운 미적 개념의 정립과 해석 기준의 필요성은 현대 미술계에서 먼저 제기되었는데 이들은 18세기 바움가르텐(Baumgarten)에 의해 제시되었던 전통 미학의 한계를 넘어 지각과 감정을 중심으로 새로이 형성된 현대 예술의 흐름을 파악하며 그 표현의 논리를 해석하고자 한다.

2) 프로이트가 미학원리로 주장한 언캐니 개념은 라캉, 줄리아 크리스테바, 슬라예보 지젝, 할 포스터 등의 현대미학자들에 의해 보다 확장된 개념으로 연구되고 있다. 할 포스터는 “초현실주의로 알려진 20세기 초의 예술과 문화현상은 무엇보다도 언캐니와 관계한다.”고 이야기한다. - Nicholas Royle, The Uncanny, Routledge, 2003, p.97

3) Sigmund Freud, The Uncanny(1919), in studies parapsychology, ed. Philp Rieff, New York, 1963, p.31

4) 할 포스터, 욕망, 죽음 그리고 아름다움, 전영백 역, 아트북스, 2005, p.192



<그림 1> The Second Uncanny Valley,
출처 <http://www.gorelets.com/uncanny/theory/transhumanism-and-the-second-uncanny-valley>

의 영역을 ‘언캐니 밸리(uncanny valley)’⁵⁾로 설명한다. 마사이로 모리가 이야기하는 언캐니는 주체가 과도한 자극을 제어하지 못할 때 사람들이 잠재우거나 억누르는 불안(anxiety)을 불러 일깨움으로써 마음의 작용을 촉발시키는 것으로, 프로이트는 이것을 섬뜩하고 무서운 느낌으로 설명하였으며, 발터 벤야민(Walter Benjamin) 역시 불안을 언캐니가 빚어낸 결과로 이야기하며 언캐니와 불안이 모종의 관계를 맺고 있다고 주장하였다.⁶⁾

2.2. 언캐니의 생성구조와 미학적 재현전략

미적 경험의 한 특이한 변종으로 기술되는 언캐니는 ‘억압된 것이 귀환하였을 때 발생하는 감흥’으로, 프로이트는 “예술이란 인간의 억압⁷⁾된 바람을 승화된 여러 형태로 표현함으로써 우리에게 쾌감을 준다.”고 이야기하며, 자신이 연구한 심리학적 이론체계인 정신분석이론에 비추어 문화와 예술의 해석을 시도하였다. 현대예술사에서 언캐니를 유발하는 억압구조, 억압의 메커니즘은 사실주의(realism) 및 초현실주의(surrealism) 작가의 작품에서 두드러지는데, 이들 모두 프로이트의 정신분석학과 미학이론에 영향을 받아 인간 심연에 감춰진 무의식의 세계를 작품에 표현하며 낯선 공포의 근원을 주체 내부 속에 위치시켜 의미화하고자 하였다.

(1) 이중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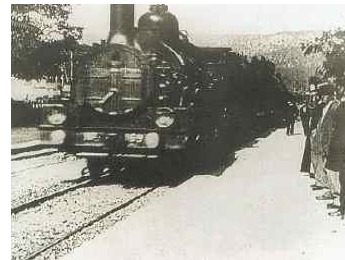
실재에 대한 인간의 불안과 공포를 담아내며 최대한의 만족을 찾도록 유도하는 억압의 메커니즘은 다양한 방식으로 시도되는데, 이 중 이중구조(dual structure)의 미학적 재현전략은 작품에 억압(repression)의 요인을 부여함

5) 언캐니밸리(uncanny valley)는 혐오스러움이 원래 친숙함에서 시작되는 반향임을 해석한 것으로 마사이로 모리는 인간에게는 인간을 닮은 개체에 호감을 가지는 특성이 있으며 인간적 특성이 많을수록 호감도는 증가하지만 로봇이 완벽하게 인간을 닮지 않고 흡사하게 닮았을 경우에는 보통 초기 로봇보다 오히려 인간을 닮은 특성이 더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상하거나 혐오스럽다고 느끼게 된다고 주장한다.

6) Walter Benjamin, A shot History of Photography(1931), trans. Phil Patton, in Alan Trachnberg, ed., Classic Essays on photography(New Haven, 1980), p.209

7) 억압은 만족시킬 수 없는 동기와 죄의식을 유발하는 충동으로 프로이트는 억압의 동기를 불쾌를 산출하는 특정 자극을 피하기 위한 것으로 정의하고 억압을 보편적인 심리 현상으로 기술한다.

과 동시에 이를 전복시키는 상황을 설정하여 심리적 억압 해소(relief from repression)의 과정을 극대화하려는 의도를 담고 있다. 대표적인 작품으로는 사실주의 창시자인 뤼미에르 형제(Auguste et Louis Lumière)의 다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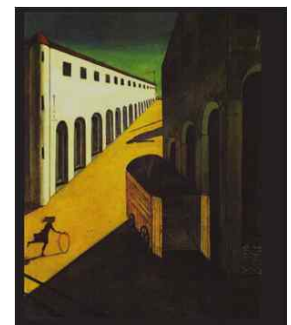
<그림 2> Auguste et Louis Lumière,
The Arrival of a Train at La Ciotat,
1895

출처 <http://www.csa.com/discoveryguides/film/review3.php>

멘터리적 영화인 ‘열차의 도착’을 예로 들어 설명할 수 있는데, 이들은 관객을 향해 빠르게 돌진하는 열차의 실제 모습을 영상에 담아 관객에게 극적 긴장의 압박을 부여한다.⁸⁾ 이렇게 계산된 연출은 혼란스러움과 충격을 유발하여 관객들을 동요시키는데, 현실과 비슷하게 재현된 열차의 이미지는 언캐니한 감정을 발생시키는 요소로 관객들을 교란시키며, ‘불안감’을 부여한다. 관객들은 빠른 속도로 자신을 향해 달려오는 열차의 움직임을 보며 순간적인 두려움을 느낌과 동시에 곧 이것이 실재가 아니라는 상황을 인식하며 억압해소의 과정을 통해 만족을 찾게 된다.

(2) 트라우마

프로이트의 무의식과 억압이론에 따르면, 내적 트라우마(trauma)는 전쟁이나 재앙, 사고, 소외, 폭력 등과 같이 극단적 충격을 낳음으로써 정상적인 의식에 편입되지 못하고 무의식에 억압되어 있으면서 끊임없이 돌발적으로 재귀하는⁹⁾ 정신적 상처로써 이는 시간이 지난 후 감정을 자극하는 요인으로 작동한다. 특히 어린 시절에 체험한 심리적인 박탈과 좌절은 훗날 간접적으로 드러나며 짧은 기간 내에 강력한 자극의 증가를 유발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는데, 이러한 트라우마적 체험은 초현실주의 작가들의 작품에서 주요 모티브로 다루어지며 작품을 형성하는 창조적 메커니즘으로 작용한다. 초현실주의의 개척자라고 불리는 데 키리코(Giorgio de Chirico)의 작품에서도 이러한 트라우마적 표현을 찾아볼 수 있는데 그는 가족의 상실에서 비롯된 좌절과 소외를 왜곡된 원근감과 음영이 상반된 건물, 정체를 알 수 없는



<그림 3> G. De Chirico,
Mystery and Melancholy
of a street, 1914,
출처 <http://www.wikipaintings.org/en/giorgio-de-chirico>

8) 토마스 엘세서, 케이트 호프만, 디지털 시대의 영화, 김성욱 역, 한나래, 2002, p.78

9) <http://zoehouse.tistory.com/45>

그림자로 표현하였다. 초현실주의의 대표작가 르네 마그리트(René Magritte) 역시 상실된 대상에 대한 고통과 우울을 불안정하고 비이성적인 영상들로 승화시켜 표현하였는데, 그의 작품에서 트라우마적 기억으로 인한 이미지의 형성은 어린 시절 경험한 어머니의 자살로부터 비롯된다. 그는 덮어씌우거나 가려진 '얼굴 없는' 이미지를 반복적으로 사용하며 자신이 겪은 트라우마적 장면들을 표출하며, 기억과 환경에 대한 재인식을 불러일으키는 일련의 이미지로 언캐니를 유발시킨다.

(3) 위협구조



<그림 4> H. R. Giger, Biomechanoid, 1976, 출처 <http://art.vniz.net/en/giger/Giger-Biomechanoid.html>

트라우마가 과거의 경험, 기억에서 비롯된 억압(repression)의 일종이라면 위협구조(threatening structure)는 현실에서 비롯된 억압의 일종으로 생존을 위협하는 공포나 한계상황에서 야기되며 이는 일상생활에서 접할 수 있는 사물이나 사건과는 다른 무엇인가를 경험할 때 느끼는 일종의 정신적인 '충격'에서 야기되기도 한다.¹⁰⁾ 미학사에서 위협대상에 대한 원초적 불안을 표출함으로써 외부 대상에 대해 특정 방식

의 반응을 형성하는 언캐니적 표현은 상상적 형상¹¹⁾으로 현대 사회의 부정적인 측면들이 극대화되어 강조되었는데, 인간을 위협하고 파괴하는 소재로 기계 문명, 전쟁, 테러리즘이 적용되었으며 형상의 파괴나 변형, 파잉된 이미지의 창출, 기괴한 풍경과 금기시되던 행위들이 거침없이 표현되었다. 위협상황의 극단적 표현은 프로이트가 주장한 정신분석학에 매료되어 자신의 꿈을 매일 기록하고 스케치했던 한스 루디 기거(H. R. Giger)의 작품에서 두드러지는데, 그는 기존 초현실주의가 꿈의 활동을 통해 인간의 숨겨진 성적 의미를 찾는 데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 '출생전의 경험'과 '출생의 악몽'에 큰 의미를 두었으며,¹²⁾ 인류에게 닥친 위협에 대한 경고의 표현으로 기형화되고 고통당하는 병든 태아를 자신의 작품에 반복적으로 등장시키며 20세기의 오염된 환경과 현대 기

계문명에 대한 잠재적 불안을 담아 언캐니를 유도한다.

(4) 반복강박

프로이트는 인간 본능에 내재해있는 반복을 향한 강박적인 충동(compulsion) 즉, '불쾌'한 경험을 반복하는 행동을 언캐니와 연계하여 설명하였는데, 반복과 언캐니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예를 들어 설명한다. "어느 더운 여름날 오후 나는 이탈리아의 한 작은 도시의 인적 없는 작은 골목을 거닐고 있었다. 나는 첫 번째 교차로가 나오자 서둘러 그곳을 떠났다. 그러나 안내자 없이 잠시 혼자 이리저리 배회하던 끝에 보니 처음에 내가 호기심의 대상이 되었던 곳으로 문득 되돌아와 있는 것이었다. 다시 서둘러 그곳을 떠났지만 나는 다른 길을 통해 세 번째로 같은 곳에 되돌아오려고 말았다. 그때 나는 두려움의 낯설음의 감정이라고 밖에는 달리 말할 수 없는 감정 상태에 사로잡혔다."¹³⁾ 프로이트는 자신이 비의도적으로 여러 번 반복해서 같은 장소로 되돌아오는 현상에서 두려운 낯설음의 감정을 느꼈으며, 이러한 상황을 '숙명성'이라고 인식했다. 그 이유는 두려운 낯설음의 감정이 없다면 우리가 느꼈던 '숙명성'이란 우연에 불과하기 때문이라고 언급한다.¹⁴⁾ 이렇듯 반복되고 되풀이되는 특성 때문에 불안과 두려움을 야기하는 반복강박의 미학적 재현전략은 거대한 철관을 사용하여 관객들에게 자신들의 상대적인 연약함을 상기시키며 원호의 반복되는 공간으로 행위의 전망을 차단하고 한 방향으로만 진행되는 반복적인 상황을 유도하여 강박적인 충동을 부여하며 언캐니를 생성하는 리차드 세라(Richard Serra)의 작품과 연계하여 설명될 수 있다. 그는 필연적 법칙에 의해 일정한 행동이나 반복적인 행위의 패턴을 만들어냄으로써 지각의 신선함을 되살리는 동시에 반복강박에서 오는 두려움을 경험하게 하여 정서 변화를 촉발시키고자 한다.

<표 1> 언캐니의 생성구조와 미학적 재현전략

언캐니의 생성 구조와 미학적 재현전략	
이중구조	억압과 해소의 과정, 억압된 것이 귀환하였을 때 발생하는 감흥 퀴미에르(Lumière) 형제의 '열차의 도착(The Arrival of a Train)'
트라우마	재기억을 통한 소외와 부재의 이미지 상기, 불안과 공포 표현 데 키리코(G. De Chirico)의 '거리의 우울과 신비'
위협구조	신체와 기계장치의 결합, 공격적인 이미지로 혼란과 충격 발생 한스 루디 기거(H.R. Giger), '바이오메카노이드(Biomechanoid)'
반복강박	한 방향으로 진행되는 반복적 상황을 유도, 강박적 충동 부여 리차드 세라(R. Serra)의 '뱀(Snake)'

이상과 같이 작품에 인간의 존재론적인 삶과 불안을 부여하여 '불쾌'의 경험으로써 정서변화를 촉발시키는 '이중구조', '트라우마', '위협구조', '반복강박'은 경험의 강도를 증폭시키고 심리적 변화를 유도할 수 있는 언캐니의 생성구조로, 이들 모두 미적 경험형식을 역동적으로

10) 언캐니의 현대이론가인 케오르키 토도로프(Tzvetan Todorov)는 언캐니가 우리의 한계 경험이라고 부를 수 있을 어떤 것과 연관되며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한계 상황과 마주칠 때 언캐니 효과가 발생한다고 주장한다. - Nicholas Royle, The Uncanny, Routledge, 2003, p.150
 11) 스위스 비평가 보드머(J.J. Bodmer 1698-1783)가 말하기를 상상력은 모든 세계의 신비를 벗기며 그것은 실재를 생생하게 눈앞에 가져다 주고, 마법보다 강력한 힘으로 존재하지 않는 것을 부여함으로써 이를 새로운 창조물로 보고, 느끼고, 듣게 해준다고 했다. - 수잔 K. 랭거, 박용숙, 예술이란 무엇인가, 문예출판사, 1999, pp.145-156
 12) 황지현, HR. 기거의 바이오메카노이드에 나타난 상징성, 한국기초조형학회 vol.9 no.4, 2008, p.32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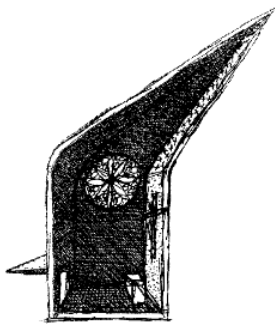
13) 지그문트 프로이트, 예술, 문화, 정신분석, 정장진 역, 열린 책들, 1996, p.428
 14) ibid., p.429

구성하며 이미 지각하고 있는 경험적 이미지를 뒤엎어 낯익은 일상과 상황을 낯설게 만듦으로써 언캐니를 유발시킨다. 또한 이들 모두 상호보완적인 개념으로 서로 연관되어 언캐니 효과를 배가시키며 경험된 틀에 박힌 시각을 탈피하도록 하여 언캐니 효과를 산출한다.

3. 건축적 언캐니의 개념형성과 전개

3.1. 언캐니의 공간적 성격

건축에서 언캐니에 관한 공간적 사유는 앤서니 비들러(Anthony Vidler)¹⁵와 존 헤이덕(John Hejduk)의 저서 및 건축 담론에서 그 내용을 살펴볼 수 있는데, “나의 건축적 정향은 집다움(homely)에 반하는 것이다.”라고 주장하며 지극히 평온해 보이는 형태에 섬뜩함, 공포를 잠복시켜 불안감을 조성하며 건축을 언캐니로 읽어내는 존 헤이덕은 건축에서 언캐니의 경험을 ‘무언가 다른 것’으로써, 평온한 듯 보이는 그 표면 밑에 ‘괴물(monster)’ 혹은 모종의 두려움이 잠복되어 있다고 이야기하며 보이는 표면 밑에 잠복해 있는 어떤 존재를 기조(undertone)라는 말로 표현



<그림 5> J. Hejduk, Rose chapel of the Two Windows
출처_John Hejduk, Soundings, Rizzoli, 1993, p.33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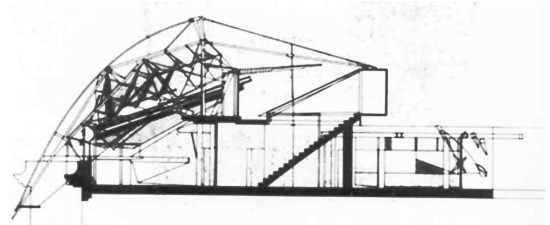
한다.¹⁶ 그는 자신에게 건축을 위대하게 만드는 것이 무엇인지 말해준 한 인도 건축가의 이야기를 들어 언캐니를 다음과 같이 서술하고 있다. “배 위에서 두 사람이 평온한 바다를 바라보고 있었다. 바로 해가 질 무렵, 정지한 그 바다가 갈라지고 상어 지느러미가 올라온다. 아마 불과 이초 동안인 것 같다. 그리고선 지느러미가 내려간다. 두 사람은 공포에 질린다.”¹⁷ 이 글속에는 언캐니에 대한 헤이덕의 이해와 함께 그의 건축에 대한 관점이 포괄적으로 드러나 있는데 헤이덕에게 건축을 드러내는 것은 본래적 충동이 분열되는 곳으로, 그는 언캐니 효과를 통해 ‘건축적 감동’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이야기한다. 그의 작품에서 다수 발견되어지는 폭발하는 도형들과 빛의 시공간망, 그림자의 구축, 고품체와 공허부, 빛과 음영 등의 대비를 통해 얻어지는 조각적 효과¹⁸는 언캐니의 건축적 표현으로 그는 이를 야기하기 위한 건

15) 비들러는 저서 ‘건축적 언캐니(architectural uncanny)에서 프로이트의 ‘낯설음’ 논의를 바탕으로 언캐니의 공간적 성격을 설명한다.
16) John Hejduk, Mask of Medusa, Rizzoli, 1985, p.127
17) John Hejduk, ibid, p.33
18) 이종건, 존 헤이덕 건축에서의 시선과 응시, 건축역사연구 제14호 3호 43, 2005, p.18

축적 특질로 부유성(suspension), 불투명성(opacity), 단단함(solidity), 가촉성(tactility), 공허(void) 등을 이야기한다. 그에 따르면 건축적 언캐니는 비실재적인 어떤 것 혹은 공허의 측면과 관계하며, 공허는 빛과 어둠의 공간, 삶에 대한 죽음의 성격으로 드러난다.¹⁹ 앤서니 비들러 역시 공허 및 어둠의 공간으로 죽음의 공간적 성격을 이야기하는데, 블레(Etienne Louis Boullée)의 기념관에 나타나는 공허, 빛에 대한 어두움의 공간, 삶과 죽음의 대비를 건축적 언캐니로 설명하고 있다.

3.2. 해체주의 건축에 내재한 언캐니적 표현

앤서니 비들러²⁰는 또한 합리주의적인 기하학적 질서의 공간 개념과는 달리 탈중심, 형태의 왜곡, 의미의 불확정성 등 전통적인 건물과 완전히 대조되는 탈구축적 방식으로 끊임없이 변화를 추구하는 해체주의 건축가들에게서 보이는 공간구성 개념을 건축적 언캐니로 설명한다. 그는 도시와 건축의 경험과 관련된 파편화의 근원, 의미, 영향 그리고 포스트모던 역사가들이나 해체주의 건축가들에 의해서 제시되었던 논제들의 이론적 배경을 언캐니 개념과 연계시키고, 이를 사회적인 범위로 확대하여 근대화 과정에서 파생된 지배적 구성요소를 낯설음(strangement)과 소외(alienation)로 해석한다.²¹



<그림 6> C. Himmelblau, Rooftop Remodeling, Vienna, Austria, 1988
출처_ <http://www.imageandnarrative.be/inarchive/uncanny/bartvanderstraeten.htm>



<그림 7> D. Libeskind, The Jewish Museum, Berlin, Germany, 1999
출처_ <http://www.berkshirefinearts.com/06-15-2009-berlin-s-jewish-museum-by-daniel-libeskind.htm>

19) John Hejduk, ibid, p.94
20) 비들러는 1985년 IA(Institute for Architecture)에서 행했던 강의들과 저서에서 존 헤이덕(John Hejduk)과 버나드 츠뭉미(Bernard Tschumi), 렘 쿨하스(Rem Koolhaas)와 피터 아이젠만(Peter Eisenmann), 쿵 힘멜블라우(Coop Himmelblau), 딜러 앤 스코피디오(Diller and Scofidio)와 같은 해체주의 건축가들에게서 보이는 형태 및 공간구성 개념을 언캐니 효과로 설명한다.
21) Anthony Vidler, The Architectural Uncanny, MIT Press, 1994, pp.31-32

해체주의 건축에 내재된 언캐니적 표현 및 공간적 사유는 쿵 힘멜블라우(Coop Himmelblau)의 작품과 공간 개념적 어휘를 통해 이해할 수 있는데, 그가 말하는 건축은 감정을 불사르는 것으로, 그는 안정적이고 보편적인 것에 대한 부정으로 변형과 왜곡에 의한 전위적이며 혼성적인 형태를 표현하며, 기묘한 왜곡과 긴장을 만들어내는 요소를 구축하고 이질의 분위기와 시각적 경험을 창출함으로써 현세계의 공간을 해방시키는 것에서 건축적 의미를 찾으려 하며, 다음과 같이 이야기한다. “건축은 동굴처럼 움푹하고 불꽃이 타오르고, 부드럽고, 딱딱하고, 각지고, 냉엄하고, 원만하고, 섬세하고, 화려하고 ... 뜨거울 때는 바로 그때는 타오르는 불꽃처럼 뜨거울 것이다. 건축은 타올라야 한다.”²²⁾ 이러한 공간적 추구 및 표현은 해체의 철학적 배경을 기본으로 하는 다니엘 리베스킨트(Daniel Libeskind)의 건축에서도 두드러지는데, 그의 작품에서 보여지는 길게 절개된 창, 각각 다른 방향성을 가지며 불규칙하게 중첩된 선과 면들의 구축, 사선으로 분기된 엇갈린 길은 보다 큰 강도의 체험을 전개하기 위한 언캐니적 표현으로 공간의 표면적 불안정성을 통해 기존에 있던 중심개념의 조화, 통일, 안정성을 조정하여 숨겨져 있던 다른 구조를 드러냄으로써 기존에 느낄 수 없었던 낯선 감각으로 건축적 언캐니를 이끌어내며 일상을 전복시키는 공간의 구축으로 우리에게 익숙한 세계를 낯설고 변형된 세계로 뒤바꾸어버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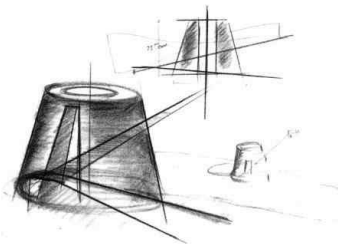
4. 건축적 언캐니의 현대적 재현방식

현대건축에서 언캐니를 생성하는 건축적 재현방식은 해체주의 건축에서 보이는 비정형적 형태구성 및 예측 불가능한 사건과 행위를 가능하게 하는 프로그램 구축의 유연적 방법론을 넘어 보다 다원화된 방식으로 전개되는데, 4장에서는 언캐니의 개념적, 미학적 고찰을 통해 도출한 ‘이중구조’, ‘트라우마’, ‘위협구조’, ‘반복강박’을 분석의 틀로 미적 경험을 공간적 차원에서 다양하게 제시해 온 현대 건축가들의 작품을 중심으로 그들의 작품에 나타난 언캐니적 표현 및 재현전략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4.1. 억압과 억압해소의 건축적 재현방식

현대건축에서 일종의 반대 항에 의한 억압과 억압해소의 과정을 통해 공간체험에 진폭을 부여하는 이중구조(dual structure)의 재현방식은 체험주체에게 더욱 강렬한 감정을 이끌어 낼 수 있는 사건의 조직으로 공간의 압축과 팽창, 어두움과 밝음, 수평적 구조와 수직적 구조의 대비 등 각 부분들 상호간에 대립적인 관계를 가지는 충돌을 발생시킴으로써 언캐니 효과를 산출한다. “몸이

사로잡혀있는 공간감과 건축에 걸친 엄격한 기하학과의 차별이 크면 클수록 인간은 자극을 받으며, 건축에 배반의 드라마를 삼입하여 인간의 정신에 깊게 상관하면서 그 사람이 계속 그 공간체험을 잊지 못하게 하는 것을 만들어 가고 싶다.”²³⁾고 이야기하는 안도 다다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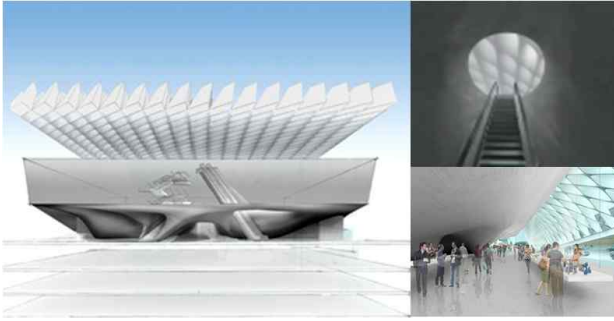
<그림 8> T. Ando, Museum of Wood, Prefecture of Hyogo, Japan, 1994, 출처_ <http://blog.naver.com/rainsang9?Redirect=Log&logNo=110078285202>

(Tadao Ando)의 건축에는 이러한 억압과 억압해소의 이중구조가 부조화관계를 통해 창출되는데, 그는 응집력이 강한 폐쇄적 분위기의 내밀한 공간으로 고도의 긴장감을 조성하며, 다시 최대한의 압축으로부터 최대한의 확장을 이끌어내는 공간의 구축으로 극적 전환과 강렬한 충돌의 효과를 발생시켜 공간적 체험을 증폭시키며, ‘고립’과 ‘전복’에 의한 공간적 몰입을 촉진시켜 언캐니의 이중효과를 극대화

한다. <그림 8> 나무의 전당에서 보여지는 원형의 폐쇄적 수직구조는 강한 압축력이 작용하는 공간으로 체험자의 움직임을 정지시키고, 긴장을 고조시키며, 감각의 부조화를 경험하도록 유도된 억압의 공간적 요소로 언캐니 효과를 산출하며 인간의 정신을 자극하게 된다. 안도는 이러한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극도로 이완된 공간을 공간 진입부에 배치하고 움직임을 지체시킴으로써 공간에 대한 기대감을 상승시키며 다시 위압감을 주는 상대적 스케일로 공간체험의 강도를 변화시킴으로써 반전의 효과를 피하며, 거대한 공간의 비위념을 통해 최대한의 압축으로부터 최대한의 심리적 확장을 이끌어내 억압해소에 의한 만족감을 찾도록 유도한다. 최대 공간감을 유발하는 억압과 억압해소의 이중구조는 딜러와 스코피디오(Diller & Scofidio)의 건축에서도 살펴볼 수 있는데, 이들은 상반된 특성이 공존한 대립적 범주를 경험적 체험을 증폭시키는 언캐니적 요소로 설정하며 모순되고 상반되는 기하학적 형태들의 결합, 이행에 따른 개방감과 폐쇄감의 전환과정과 좁고 넓은 공간감의 변환과정과 같은 이항 대립적 구조의 동시적 결합으로 부조화 상태를

22) 피터노에버, 뉴모더니즘과 해체주의1, 청람 출판사, 1996, p.4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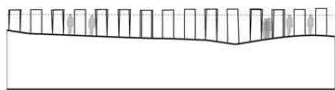
23) Tadao Ando, 新建築 from the periphery of Architecture, 1991, p.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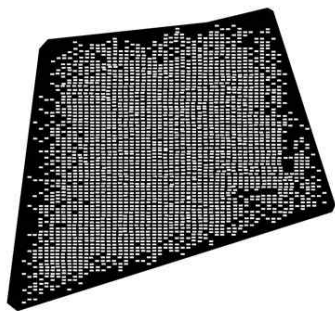
<그림 9> Diller & Scofidio, The Broad Museum, Los Angeles, USA, 2013
출처_ <http://www.arcspace.com/features/diller-scofidio-renfro/>

유발하여 극적 전환과 강렬한 충돌의 효과를 산출하는 방식으로 억압과 해소에 의한 이중구조의 효과를 극대화한다. <그림 9>에서 보여 지는 바와 같이 진입을 유도하는 동굴과도 같은 좁고 어두운 전이 공간은 무의식적인 반사적 감각을 환기시키기 위한 억압의 공간적 표현이며, 별집구조의 외피를 통해 빛의 유입량을 증가시켜 공간의 확장감을 극대화한 오픈공간은 이항 대립적 공간구도를 더욱 효과적으로 강조하기 위한 억압해소의 공간적 표현으로 설명될 수 있다. 이러한 반전 관계, 공간의 '고립'과 '전복(subversion)'은 수축에서 팽창으로 또는 팽창에서 수축으로의 보이는 않는 힘의 개념이 적용됨으로써 지각변화를 유도하여 건축적 경험형식을 강화시킨다.

4.2. 트라우마적 체험의 건축적 재현 방식



Section Detail



Top Plan of Modules

<그림 10> P. Eisenmann, Holocaust Memorial, Berlin, Germany, 2005,
출처_ <http://studioberlin.org/2012/?p=910>

여 '기억의 장소'를 만들고 상실된 대상을 다시 한 번 존재하게 하는 것이며, 기억의 의미를 재생시키는 방식으로 감정을 고양시키고자 함이다. 피터 아이젠만(Peter Eisenmann)의 ggf트라우마적 체험을 유도하는 방식은 지각적 재현과 유사행위를 재구성하는 방식을 통해 드러나는데, 그는 유대인들을 추모하기 위한 공간으로 베를

린 장벽이 허물어진 광장에 2,711개의 거대한 콘크리트 매스들을 배열하고 상대적인 공간의 깊이감과 위압감으로 심리적 긴장을 고조시킨다. 여기서 거대한 스케일의 매스들은 언캐니적 기제로 상실된 대상에 대한 고통, 기억을 상기시키는 방식을 취하여 의식을 가상적 차원으로 접속하며 무의식적인 공포감을 야기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피터 아이젠만은 이러한 콘크리트 매스의 배열에 미로(maze)의 개념을 적용하여 과거의 시간 속에 벌어진 사건에서 길을 잃고 헤매는 모습을 재현하고자 하였는데, 그의 작업에서 이러한 행위의 재구성은 실존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의도가 내포되어있다. "나의 목표는 건물에서 발생하는 이벤트들을 위해 이성적으로 프로그램되어진 건물 뿐만 아니라, 감정적으로 예상치 못한 현실로 인해 방문자들의 마음을 이해하는 구조를 위해 노력한다."²⁴라고 이야기 하며 사회적 트라우마를 작품의 주요 모티브로 다루며 이를 일상적인 감각과 논리를 뛰어넘는 창조적 방식으로 승화시켜 표현하는 다니엘 리벤스킨트(Daniel Libeskind)는 그의 건축에 감정을 고양시키기 위한 전략으로 흔적(trace), 부재(absence)의 개념을 통해 시간적 양자를 조합하여 새로운 관계를 형성하며 트라우마의 내재적 인지를 유발시켜 의식과 무의식의 접속에 관여한다. 다니엘 리벤스킨트는 9.11 테러에 의한 그라운드 제로 계획안(Ground Zero Master Plan)에서 미국 역사의 빛과 어둠을 극명하게 드러내는 트라우마적 공간을 제시하였는데 그는 자신의 작품 속에 '만남과 소멸의 논리', '존재와 부재'의 독특한 논리를 만들면서 상실, 사라짐에 대해 생각하게 한다. 그는 기존 건물이 있던 붕괴된 기저부의 벽을 그대로 남겨두고 이를 중심으로 계획안을 전개하였는데, 두 건물이 사라진 곳을 비워둠은 '비참한 과거의 흔적' 즉, 파괴의 흔적을 드러냄으로써 상실을 기억하도록 한다는 취지가 담겨있다.²⁵ 그는 트라우마적



<그림 11> P. Eisenmann, Holocaust Memorial, Berlin, Germany, 2005,
출처_ <http://arquitectura.divisibles.com/?p=354>



<그림 12> D. Libeskind, Ground Zero Master Plan, New York, USA, 2012,
출처_ <http://globalgrind.com/news/reflecting-absence-9-11-memorial-and-freedom-tower-shine-bright-photos>

린 장벽이 허물어진 광장에 2,711개의 거대한 콘크리트 매스들을 배열하고 상대적인 공간의 깊이감과 위압감으로 심리적 긴장을 고조시킨다. 여기서 거대한 스케일의 매스들은 언캐니적 기제로 상실된 대상에 대한 고통, 기억을 상기시키는 방식을 취하여 의식을 가상적 차원으로 접속하며 무의식적인 공포감을 야기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피터 아이젠만은 이러한 콘크리트 매스의 배열에 미로(maze)의 개념을 적용하여 과거의 시간 속에 벌어진 사건에서 길을 잃고 헤매는 모습을 재현하고자 하였는데, 그의 작업에서 이러한 행위의 재구성은 실존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의도가 내포되어있다. "나의 목표는 건물에서 발생하는 이벤트들을 위해 이성적으로 프로그램되어진 건물 뿐만 아니라, 감정적으로 예상치 못한 현실로 인해 방문자들의 마음을 이해하는 구조를 위해 노력한다."²⁴라고 이야기 하며 사회적 트라우마를 작품의 주요 모티브로 다루며 이를 일상적인 감각과 논리를 뛰어넘는 창조적 방식으로 승화시켜 표현하는 다니엘 리벤스킨트(Daniel Libeskind)는 그의 건축에 감정을 고양시키기 위한 전략으로 흔적(trace), 부재(absence)의 개념을 통해 시간적 양자를 조합하여 새로운 관계를 형성하며 트라우마의 내재적 인지를 유발시켜 의식과 무의식의 접속에 관여한다. 다니엘 리벤스킨트는 9.11 테러에 의한 그라운드 제로 계획안(Ground Zero Master Plan)에서 미국 역사의 빛과 어둠을 극명하게 드러내는 트라우마적 공간을 제시하였는데 그는 자신의 작품 속에 '만남과 소멸의 논리', '존재와 부재'의 독특한 논리를 만들면서 상실, 사라짐에 대해 생각하게 한다. 그는 기존 건물이 있던 붕괴된 기저부의 벽을 그대로 남겨두고 이를 중심으로 계획안을 전개하였는데, 두 건물이 사라진 곳을 비워둠은 '비참한 과거의 흔적' 즉, 파괴의 흔적을 드러냄으로써 상실을 기억하도록 한다는 취지가 담겨있다.²⁵ 그는 트라우마적

24) Daniel Libeskind, daniel-libeskind.com

25) 상실을 강조하는 것은 원래 있었던 것에 대한 지속적인 회상, 그리고 그 상실을 초래한 폭력에 대한 끊임없는 각성, 나아가 그 상실을 대체할 무엇인가에 대한 요구를 의미한다. - 박진빈, 9.11 기억의 터 :

체험을 구체화하는 방식으로 관람자로 하여금 지상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면서 파괴의 현장을 목격하고 다시 그 밑으로 내려가서 위를 올려다보면서 사건을 회상하게 함으로써 행위에 의한 지각변화를 유도하여 트라우마적 사건을 기념하게 하며 한 눈에 보이지 않는 논리를 건축적으로 승화시켜 내재적 의식의 접속에 관여하여 심리적 변화를 모색한다.

4.3. 위협구조의 건축적 재현 방식



<그림 13> D. Libeskind, Military History Museum, Dresden, Germany, 2011
출처 http://ffffound.com/image/df928c48735678_a983750129f54a773b0ad5536

현대건축에서 위협구조의 건축적 재현은 지각 범위를 넘어서는 ‘불안한 지점’을 가시화하는 방식을 통해 드러나는데 방향성 긴장을 야기하는 기울어진 빗변(oblique line)²⁶과 예각 등 사선의 구성을 통한 긴장, 형상이 갖는 사선이미지는 시선을 압도하고 불안을 야기하며 주체의 심리적 강도를 확장시키는 요소로 작용한다. 다니엘 리벤스킨트의 건축에서 정형적 형태에서 벗어나 각도를 달리하는 기울어진 벽체와 천정은 체험주체가 이동하면서 빗변을 바라볼 때 잠재우고 억누르는 불안을 불러일으키며 감각을 환기시키고 인간의 감성을 편입시키기 위한 것으로, 사선과 다이아몬드 형상의 공간은 상대적으로 동적이고 불안한 느낌의 반사적 긴장을 부여하며 이는 그의 건축에서 주요한 디자인 개념으로 사용된다. 딜러와 스코피디오(Diller & Scofidio) 역시 인간의 밑바탕에 잠재한 원초적인 두려움을 경험하게 하는 방식으로 사선의 긴장을 이용한 공간을 형성하는데, 이들은 수면을 향해 사



<그림 14> Diller & Scofidio, Institute of Contemporary Art, Boston, USA, 2006,
출처 http://www.architizer.com/en_us/blog/dyn/46229/archispotters-first-1000-miles-must-see-projects-along-the-way/

선으로 기울어진 공간을 구축하고 시선 아래로 보여지는 광경을 수면과 대치시킴으로써 ‘시각적 긴장’을 연출한다. 이들이 구현하고자 하는 언캐니는 ‘시각충동’의 극적인 순간을 표현한 것으로 기존에 느낄 수 없었던 낯선 감각으로 지각의 신선함을 되살림으로써 언캐니를 산출한다. 또한 현대건축에서 불안한 지점을 가시화하는 방식은 중력에 반하는 탈구조에 의한 반-중력성(ex-gravity) 혹은 부유(floating)를 통해서도 표현되어지는데 이는 구조적 대담함을 통해 시각적 긴장을 연출하기 위함으로 체험자에게 흔들리는 구름다리를 건너는 것

과 같은 상상적 불안을 불러 일깨움으로써 쾌와 불쾌가 혼합된 언캐니한 감정을 유발시켜 우리에게 익숙한 환경을 낯설고 변형된 세계로 뒤바꾸어 버린다. 이렇듯 불안을 가시화하는 방식은 매스에 비해 상대적으로 세장한 기둥의 사용, 중력으로부터 일탈된 매달린 구조(suspension)의 표출, 길게 돌출된 상층부의 전면 개방 등 다양한 방식으로 전개되며 이러한 부유에의 회귀, 표현은 MVRDV, 헤르조그와 드 뮌런(Herzog & de Meuron)의 작품에서 두드러진다. 이들은 길게 돌출된 캔틸레버 형식으로 건축 구조의 영원성과 완결성을 해체시켜 불안정한 이미지를 연출함으로써 언캐니를 야기하는데, 헤르조그와 드 뮌런은 언캐니 효과를 배가시키기 위한 방식으로 누구에게나 익숙한 집의 형상을 사용하며 이를 비밀스러운 방식으로 적층하여 모호하고 기괴한, 반항을 일으키는 공간을 창출해 낸다. 즉, 이들은 ‘익숙함에서 오는 기이함’²⁷을 통해 건축적 언캐니를 구현하고자 하며 상상에 의한 건축적 경험형식을 강화시키고자 한다.



<그림 15> MVRDV, Wozoco, Amsterdam, Netherlands, 1997
출처 http://blog.tigico.com/?page_id=51
<그림 16> Herzog & de Meuron, VitraHaus, Weil am Rhein, Germany, 2010
출처 <http://www.archdaily.com/50533/vitrahaus-herzog-de-meur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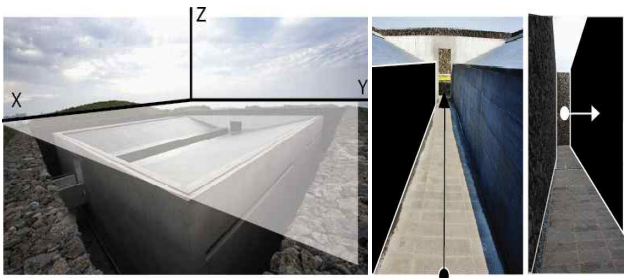
미국 예외주의의 트라우마, 한국사회사학회 제78집, 2008, pp.108-109

26) 쿠퍼유니온에서 헤이덕(J. Heiduk)의 영향 하에 있었던 리벤스킨트의 작업은 헤이덕의 작업과 일맥상통한 면모를 지닌다. 헤이덕은 다이아몬드 형태의 “빗변의 순간”을 다음과 같이 표현한다. “가장 평온한 순간이며, 동시에 엄청난 긴장의 순간이다. 통로의 순간이다. 벽은 통로의 감각을 환기시키고, 같은 방식으로 그 얇음은 순간에 있다는 감각, 나는 ‘현재’라고 부르는 순간을 상기시킨다. - John Hejduk, *ibid*, p.67

27) 스티븐슨(R.L.Stevenson)은 익숙함에서 오는 기이함을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기이함은 오직 일상적이고 낯익은 것과의 관계 속에서만 존재한다. 이처럼 기이함은 일상적인 것을 낯설게 하기 때문에 어떠한 통일된 현실에 대한 재현도 진복시킨다. 즉 그것은 사물들 사이의 틈새에 스며들어 우리에게 익숙한 세계를 낯설고 변형된 세계로 뒤바꾸어버린다.” - R. L. Stevenson, *The Strange Case of Dr. Jekyll and Mr. Hyde*, London, 1925, p.242

4.4. 반복강박의 건축적 재현 방식

진입할 입구를 찾거나 또는 선택하게 만드는 마스크레이드(masquerade) 개념은 주체를 공간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반복강박의 건축적 재현방식으로 행위의 전망을 차단함으로써 공간을 의식적으로 탐색하게 하며 체험주체를 생성한 상황 속으로 몰고 간다. 선택적인 여러 방향의 움직임은 생성함으로써 우연한 마주침과 놀라움, 기대감, 호기심을 야기하는 미로(maze)로써의 평면은 마스크레이드 개념²⁸⁾을 구체화하기 위한 전략적 도구로써 움직임의 여정 속에 순간적인 멈춤 효과로 지각되는 충돌을 유발시키며, 인지교란(disturbance)



<그림 17> T. Ando, Ginus Loci, Jeju, Korea, 2008

출처_박경아, 현대건축의 '긴장-이완'요소에 의한 공간조직화 논리 연구, 홍익대 박사, 2012, p.112

으로 공간체험에 자율성과 우연성을 부여한다. 이러한 미로적 공간구성은 안도 다다오(Tadao Ando)의 작품에서 살펴볼 수 있는데 안도는 입구에서 공간의 중심에 이르는 길에 막다른 골목²⁹⁾을 만들어 놓고 길에 대한 끊임 없는 선택을 강요하며 탈위계적 공간속에서 자유로운 동선과 경험을 유도함으로써 긴장 관계를 초래한다. 안도 건축에서 반복강박은 한 번에 보이지 않는 논리, 즉 교란과 은폐를 통하여 이루어지는데 그는 사방을 폐쇄하고 일부를 개방함으로써 공간을 틈새를 통해서만 보이도록 하여 공간에 대한 무의식적인 공포감을 불



<그림 18> T. Ando, Ginus Loci, Jeju, Korea, 2008,

출처_ <http://blog.naver.com/chois8112?Redirect=Log&logNo=60114042461>

28) 베르나르 츠뭉(Bernard Tschumi)는 마스크레이드의 속성을 다음과 같이 이야기한다. “ 건축은 끊임없이 유희하는 역할을 한다. 건축의 가면을 통한 위장은 수없이 많다. 입면, 아케이드, 광장, 심지어 건축 개념조차도 유희를 위한 가면이 될 수 있다. ... 사람들은 가면 뒤에 숨어있는 실체를 읽고 싶어 한다. 하지만 가면 뒤에는 아무것도 없으며 존재하는 것은 흔적 즉, 변화하는 기면만이 있을 뿐이다. - 김형기 외, 가면과 욕망, 연극과 인간, 2005, p.21

29) 안도 건축에서 좁은 골목길을 연상시키는 통로와 계단의 일상적인 사용은 그의 건축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요소이다. 이렇게 방문자의 움직임을 고려하여 만들어 놓은 그의 공간 이야기는 우연과 의외의 상황이 지배하고 비일상적 자극을 통한 공간의 실제감을 더욱 증진시켜 시각 및 지각의 확장적 체험을 유도한다.

러일으키고자 한다. 그는 관객들에게 혼란을 야기시키는 방법으로 정방형의 기하학적 형태를 기본으로 하여 유사구조의 반복과 방향성의 제거, 체험주체의 선택에 따라 변화를 초래하는 접근성의 자유를 부여하며, 미로와 같은 기하학적 구성에 어떠한 표지도 없는 길을 만들어 부동성(immobility)의 움직임으로 공간 체험을 긴장상태로 몰고 간다.

4.5 소결

본 논문의 2장 프로이트의 논리를 중심으로 도출한 4가지 분류 개념을 통해 조망한 현대건축의 연캐니적 표현경향 및 표현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표 2> 현대건축에 나타난 연캐니적 표현특성 및 구현방식

개념	공간 사례	연캐니의 건축적 구현방식	특징
이중 구조	Ando Tadao, Museum of Wood Hyogo	폐쇄적 공간감, 어두운 높은 벽의 수직적 공간구조	고립
	Diller & Scofidio, The Broad Museum	개방감과 폐쇄감의 전환과정 수직·수평적 광장에 의한 움직임대비	전복
트라우마	Peter Eigenman, Holocaust Memorial	표상이나 관념에 근거한 유사행위의 형성, 지각적 재현	흔적
	Daniel Libeskind, Ground Zero Master Plan	트라우마(파괴)의 현장을 비워두고 상실을 기억하도록 계획안 전개	부재
위험 구조	Daniel Libeskind, Military History Museum	기울어진 축, 다이아몬드 형상의 공간으로 불안한 지점의 가시화	사선
	Diller & Scofidio, Institute of Contemporary Art	수면을 향해 기울어진 공간조성 불안정한 이미지의 형성	
	MVRDV, Wozoco Herzog & de Meuron, VitraHaus	중력으로부터 이탈된 캔틸레버 구조 들어 올려진 돌출부의 전면개방	부유
반복 강박	Ando Tadao, Ginus Loci	시각적 소거, 대지와와의 일체화	은폐
		미로적 공간구성, 행위 전망 차단	교란

첫째, 억압과 억압해소에 의한 이중구조는 극적 긴장의 압박과 이완의 공간을 생산하는 것으로 현대건축에서 대립개념의 동시적 경험 창출과 함께 공간의 이행과정에 따른 선행하거나 후속하는 각 부분들 상호간의 공간적 이점을 통해 감각의 부조화 상태를 유발하여 공간적 전이를 이끌어내는 것으로 두 개의 상반된 극성 분리와 이항 대립적 요소에 의한 부조화 형성 및 대립경험의 동시적 경험으로 공간 볼륨의 형태, 공간밀도와 공간간의 관계형성에 의한 팽창과 압축 등 극대화된 공간감의 강조하며 ‘반전 효과’를 통하여 수축과 이완이라는 관계 방식을 성립시키며, ‘고립’과 ‘전복’으로 최대한의 압축으로부터 최대한의 확장을 이끌어내며 미적 경험형식을 역동적으로 구성한다. 둘째, 현대건축에서 트라우마적 체험의 건축적 구현방식은 신체와 공간과의 긴밀한 접촉을 통해 이루어지며 신체의 움직임을 이용하여 신체활동의 잠재적 가치를 구현함으로써 의식적 체험을 촉진시킨다. 몸의 수행을 통하여 역사적 사건을 기념하고 대상의 의미를 실체화 하는 방식으로 기억 속에 머물고 있는 감각대상을 변환된 느낌으로 생성하며 유사한 공간의 반복을 통해 경험에 대한 기억을 교란하여 경험의 변화를 추구

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내적 트라우마를 재생시키는 방식으로 소외적 이미지와 ‘혼적’, ‘부재’의 이미지를 적용하여 이에 따른 건축적 경험의 상승효과를 피하고자 한다. 셋째, 위협구조에 의한 불안한 지점의 공간적 표현은 비틀어진 축과 기울어진 벽의 질서 없는 탈중심적, 파편적, 배열로 시선의 다양한 축을 생성함으로써 시각적 긴장감을 유발시키며, 탈-중력적 개념 등 의도적으로 공간에 생존본능을 자극시키는 위협 상황을 연출하여 긴박한 긴장감을 야기시키기 위함으로 ‘사선’, ‘부유’를 통해 언캐니 효과를 거두고자 한다. 넷째, 현대건축에서 반복강박의 구현은 마스카레이드 개념과 미로가 가지고 있는 비결정적 움직임과 자율성을 통해 이루어지는데 이는 공간을 탐색하게하고 의도하지 않은 주체자의 선택을 강요함으로써 공간 지각 경험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이다. 여기서 미로적 공간구성은 자연스런 충돌의 효과로 지각변화를 유도하여 건축적 경험형식을 강화시키며 ‘은폐’, ‘교란’의 방식으로 예상치 못한 놀라움(surprise)에 대한 경험을 만들어 언캐니 산출한다.

5. 결론

프로이트가 미학원리로 주장한 언캐니 개념은 오늘날 시각예술의 시대적·예술사적 상황을 일목요연하게 밝혀 줄 수 있는 개념적 장치로 미의 창조적 근원과 방법론을 이해하는데 있어 중요한 분석틀이 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언캐니 미학을 근간으로 현대건축에 나타난 미적 사유와 표현을 분석하고자 하였으며, 언캐니 개념이 파생시킨 건축적 현상들을 해석하고 이를 통해 현대건축을 새롭게 조망하고자 하였다. 프로이트의 논리를 바탕으로 그 미학적 특징들을 살펴봄으로써 도출한 ‘이중구조’, ‘트라우마’, ‘위협구조’, ‘반복강박’은 체험 주체의 지각과 사고를 점화시키며 내적과정을 활성화하는 원리로서 이는 건축적 언캐니를 조직하고 구성하는 방법론이 되며 심리적인 공간체험을 형성하는 사유로 논의될 수 있다. 이러한 4가지 분류 개념을 통해 조망한 현대건축의 언캐니적 표현은 ‘고립’, ‘전복’, ‘혼적’, ‘부재’, ‘사선’, ‘부유’, ‘은폐’, ‘교란’으로 산출되는데, 이는 탈위계적 공간 속에서 다양한 행위와 이벤트를 담아내는 해체주의 건축에 내재된 언캐니적 표현의 논리를 넘어 보다 다원화된 방식으로 공간경험에 진폭을 부여하여 미적 경험형식을 역동적으로 구성하며 인간의 감성을 편입시킨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현대건축의 다원화된 미학적 표현경향을 효과적으로 분석하기 위해서 프로이트의 언캐니 개념을 설정하여 현대건축에 나타나는 중요한 특징을 접목하여 살펴보았으며 건축에서 언캐니의 의미와 번안의 가능성을 구체화하고자 하였다. 이에 본 연구의 의의를 두고자 한다.

참고문헌

1. Sigmund Freud, Studies in parapsychology, ed, Philp Rieff, New York, 1963.
2. Nicholas Royle, The Uncanny, Routledge, 2003.
3. Ellie Regland, Essats on the Pleasures of Death from Fred to Lacan, New York, Routledge, 1995
4. R. L. Stevenson, The Strange Case of Dr. Jekyll and Mr. Hyde, London, 1925
5. Anthony Vidler, The Architectural Uncanny, MIT Press, 1994
6. John Hejduk, Mask of Medusa, Rizzoli, 1985
7. 지그문트 프로이트, 예술, 문화, 정신분석, 정장진 역, 열린 책들, 1996
8. 피터 노에버, 뉴모더니즘과 해체주의 1, 김경준 역, 청람, 1996
9. 토마스 엘새서, 디지털 시대의 영화, 김성욱 역, 한나래, 2002.
10. Tadao Ando, 新建築 from the periphery of Architecture, 1991
11. 할 포스터, 욕망, 죽음 그리고 아름다움, 전영백 역, 아트북스, 2005
12. 이종진, 존 헤이덕 건축에서의 시선과 응시, 건축역사연구 제14호 3호, 2005
13. 김정선, 데 키리코의 형이상학적 회화에 나타난 정신분석학적 테마 : 언캐니(The Uncanny)를 중심으로, 경희대 석논, 2012
14. 박진빈, 9.11 지역의 터 : 미국 예외주의의 트라우마, 한국사회사학회 제78집, 2008

[논문접수 : 2012. 12. 31]

[1차 심사 : 2013. 01. 21]

[게재확정 : 2013. 02. 08]